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57 (2021. 11.)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1
02 국내외 경제이슈	6
03 국내외 정책이슈	16

[FOCUS]

01 인공지능 전지역·전산업 확산 추진방향 수립	26
-------------------------------	----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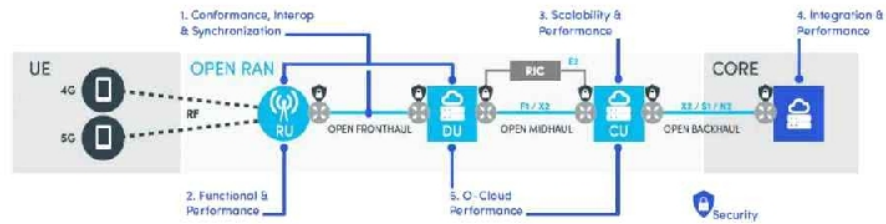


차세대 5G 통신 네트워크의 주류로 떠오르는 오픈랜

✓ 5G 통신 시장 판도를 바꾸는 오픈랜, 상용화 준비 가속화로 신시장 창출

- 5G 오픈랜(Open RAN) 도입으로 Huawei-Free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글로벌 정부
 - (미국) 국가 안보와 5G 리더십 달성을 목표로 FCC는 오픈랜 활성화 정책 수립에 착수
 - *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과 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
 - (EU) 오픈랜 도입을 위해 사이버 보안당국은 5G 네트워크 보안 평가작업 착수
 - (독일) 오픈랜 기술개발에 20억 유로를 투입하고('21.2), IT security 2.0 법안으로 네트워크에서 개별 업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21.8)
 - (영국) 5G 공급망 다양화 전략을 위해 오픈랜 연구개발에 3천만 파운드(한화 약 480억 원)를 투입하고, '27년까지 화웨이 장비 제거 계획
 - * 오픈랜 확산을 위해 G7 정상회의('21.4)와 연계한 디지털-테크 분야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픈랜 확산 부속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관망으로 불발
 - (한국) 한미 협력으로 오픈랜 기술을 활용한 5G 및 6G 네트워크를 개발하기로 하고, 과기부는 후속 조치로 민관 오픈랜 전담반 출범('21.8)
 - (일본)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픈랜을 포함한 차세대 5G 및 6G 개발에 협력하고, 45억 달러(한화 약 5조 4,000억 원) 투자에 합의('21.4)
 - * 미국 25억 달러, 일본 20억 달러

< 오픈랜(Open Ran) 개요 >



• 오픈랜(Open RAN 또는 O-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 이동 단말에서 네트워크 코어까지 **Fronthaul, Midhaul, Backhaul**의 통신장비를 특정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된 무선 접속망

- 후발 이동통신 업체는 망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픈 랜을 도입
 - (라쿠덴 모바일) 일본 4위의 후발 이동사로 기존 이동사와 달리 네트워크 구축에 SW비중을 높여 오픈랜을 최초로 상용 적용. 모바일 망 구축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저가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수출 추진
 - * ①독일 이동통신회사 I&E에 오픈랜 핵심기술인 자사의 5G 가상화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2조원대 공급('21.8)
 - ②싱가폴 TPG 텔레콤(호주)에 오픈랜 솔루션 지원('21.2)
 - ③vRAN솔루션 업체 알티오스타(Altiosstar) 인수('21.8)



01

국내외 기술동향

- (Dish 네트워크) 라쿠덴이 COTS(상용제품) 서버를 별도 구축하고 NF를 구현한 반면, Dish는 망 내에 아마존 AWS 서버를 활용하여 NF를 구축('21.4)하고 '21년 하반기에 적용 추진
- AT&T, NTT Docomo 등 기존 모바일 통신 서비스업체는 '22년 상용 적용 추진
- (AT&T*) 삼성,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활용하여 '22년 오픈랜 적용 추진
 - * AT&T CEO는 O-RAN Alliance 의장
- (Telefonica) 라쿠덴과 협력하여 유럽과 남미지역에 상용화 추진하고, '25년까지 오픈랜 전환율 50%를 달성한다는 로드맵 발표
- (NTT Docomo) 멀티벤더 장비를 활용한 4G/5G 코어네트워크를 혼용, 4.2Gbps 구현
 - * 오픈랜 구현을 위해 자일링스, 델테크놀러지, 후지쯔, 인텔, Red Hat, VMware 등 반도체, SW, OS 기업과 협력하여 자체 에코시스템 구축
- 아날로그 디바이스, 자일링스 등 반도체 기업에 신규시장을 제공하는 오픈랜
- (아날로그 디바이스) NEC코퍼레이션과 협력하여 라쿠덴모바일의 5G 기지국용 massive MIMO 안테나 RU(Radio Unit) 개발('20.10)
 - * 오픈랜 O-RU에 적용 가능한 5G Radio Platform 개발('21.3)
- (자일링스) 후지쯔의 오픈랜에 대응하는 FPGA칩 개발('20.2)
- (퀄컴) vRAN 구현을 위한 원격 무선 신호처리장치 플랫폼 RU, 분산 장치 플랫폼 DU(Distributed Unit), 분산 원격 무선 신호처리장치 플랫폼 DU/RU 등을 개발하고 '22년 공급추진('20.10)
- Open-RAN Policy Coalition*에 참여하고 클라우드 및 OS 시장을 노리는 공룡 SW 기업
 - *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삼성전자, 구글, MS, 페이스북, 인텔 등이 Open RAN Policy Coalition 결성(화웨이, 에릭슨은 불참)('20.5). O-RAN Alliance가 통신회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면 Open RAN Policy Coalition은 장비, SW,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네트워크 기업 등 업계 전반 60개 기업 참여
- (Google) O-RAN Alliance에 참여('21.7)하고, AI 기반의 5G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
- (MS) AT&T 네트워크에 Azure를 구축하고, NF가 탑재된 Azure Private MEC을 개발
- (Amazon) Dish 네트워크, SKT 망 내에 AWS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
- 시장 지배력이 낮은 국내 통신장비업체에게는 시장 점유율 강화 기회를 제공
- (삼성전자) Verizon과 7.9조원 규모의 vRAN 장비를 계약하고 보다폰(영국)의 vRAN 장비 회사로 선정('21.6)
- (HFR) Dish 네트워크와 후지쯔에 오픈랜 RU 장비 공급('21.1)



EU, 그린본드 발행스마트 모빌리티 실현 등 친환경 전환 속도

✓ 전 세계 덮친 에너지난, 친환경 산업으로 회복 구상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됐던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전력 수요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
- 올해 들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거의 3배나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금년 1월 이래 유럽 전역에서 평균 3.5배나 상승
-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금년 9월 영국 빌링엄 등 대규모 비료공장 2곳의 가동이 중단됐고 스페인 최대 철강업체 셀사, 영국 철강업체 연합 기구인 유케이스틸의 일부공장의 조업이 중지되는 등 유럽 산업계 비상
- 이에 유럽에서는 그린본드 발행, 스마트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친환경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가속

✓ 친환경 투자용 그린본드 세계 최대 규모로 발행

○ 그린본드(Green Bond)

-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며 투자자와 사용처가 제한되고 인증 절차가 엄격
- 2007년 EU의 개발은행인 유럽투자은행(EIB)이 6억 유로를 발행한 것이 시초며 초기에는 EI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 주체 확대

- EU 집행위원회는 첫 EU 그린본드를 발행해 120억 유로를 조달(10.12)
 - 15년 만기의 이번 EU 그린본드 발행에 1,350억 유로가 넘는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EU 전역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
 -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부흥 기금의 일부로 사용할 방침
 - 또한 친환경,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기금 중 30% 가량을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할 예정
 - 2026년까지 2,500억 유로(약 342조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며 EU를 세계 최대 그린본드 발행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
 - 한편, 영국과 스페인, 콜롬비아도 금년 내로 그린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이 그린본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
- ✓ 유럽연합 일부 도시에서는 친환경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본격화
- (프랑스-보르도) 운송 로봇 전문업체 슈퍼피데스트리언의 e-스쿠터 링크(LINK) 100대를 활용해 스쿠터공유 서비스 계획 발표(10.5)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30km² 서비스 전역에서 전기차를 활용해 링크를 관리하여 공유 e-스쿠터 서비스를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 링크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정비 시스템이 탑재되어 부품의 고장 수리 및 낭비를 줄여 주며 서비스 수명을 연장
- 서비스 초기에는 스쿠터 잠금 해제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슈퍼피데스트리언의 e-스쿠터 링크 모습 >



- (에스토니아-타르투) 택배회사 클레버론701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무인 택배 상용화(10.12)
- 클레버론의 자율주행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점이 특징
- 차량의 적재용량은 200kg로 시속 25km의 속도로 주행하며 자율주행이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통제 직원이 나서서 차량을 직접 조종

< 클레버론의 자율주행 무인택배 차량 모습 >



- ✓ **친환경-에너지 국가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파리기후협약에서 규정한 기온 상승 폭 제한 목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환경분야 재정지출을 늘려야한다는 공감대 형성
- 최근 유럽연합은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유럽 전역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박차
-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며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면밀하게 추진



01

국내외 기술동향

미국·영국, 인공지능 활용한 국방 기술개발 공동 협력

✓ 국방 분야 최첨단 기술 도입을 위해 美·英 파트너십 체결(10.18)

- 미국 공군연구소(AFRL: The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와 영국 국방과학 기술연구소(DSTL: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가 향후 4년간 최첨단 군사용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해 양국의 국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
-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 15개의 최첨단 머신러닝 알고리즘, 12개의 데이터셋, 임무 사항에 따라 모델을 훈련·재훈련하기 위해 자동화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등을 성공적으로 시연
- 양국은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군사 의사 결정 개선 △운영 속도 향상 △(아군) 사망률 감소 △(적군)치사율 증가 △인력 부담 축소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
- 미국 공군연구소는 인공지능과 자율성 발전은 전장에서 치사율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군대를 보호하고 더욱 유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
- 아울러 미래 전장의 속도와 규모에 맞추어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는데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이번 협력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양국 군사 작전과 혁신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언급

✓ 인공지능·드론 등 최첨단 기술 도입한 밀리테크, 새로운 전장으로 주목

* 밀리테크 : 군사군대를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ICT를 뜻하는 테크(Tech)를 합친 용어

- 전투 훈련 환경과 전쟁 양상 변화로 국방 산업에서도 첨단 ICT 역할이 높아지며 장갑차전투기 대신 드론·무인자율주행차·인공지능 등이 전장에 속속 투입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탄도 미사일을 예측·탐지하고 자율 수중 탐색 가능한 무인정, 인공지능 무인전투기, 근력증강 로봇 등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정확한 정찰과 전투 수행 가능
-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도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방 사업에 진출하면서 보잉·록히드마틴 등 기존 방산기업과 경쟁
- 세계 주요국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율무기체계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방 ICT R&D 지원단 출범과 함께 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국방에 적기 도입하려는 행보 박차

✓ 인공지능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

- 인공지능은 병력 수급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관리, 첨단 전투력의 강화를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
-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강화는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제도적 여건과 이해관계와 조직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안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산업부, 중동 경제특구와 상호 발전방안 모색 ('21.10.26.)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경제특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요 자유구역 당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0월 24일 카타르 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문승욱 산업부장관과 아흐메드 알 사이드 카타르 자유구역청 의장 겸 특임장관 임석 하에 양국 경제특구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카타르 자유구역청 간 업무협약식 개요 >

- **협약내용** : 양국 경제특구 간 정책 및 성공사례 공유, 투자유치 증대 협력, 입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일시·장소** : '21.10.24(일) 15시, 카타르 자유구역청 Business Innovation Park
- **서명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카타르 자유구역청 압둘라 알 미스나드 부청장

- 카타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라 비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8년 하마드항구, 하마드 공항 등 2개 지역을 프리존으로 지정하였고,
- 설립 3년 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한 20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외자유치 기반을 구축한 카타르 자유구역청 간의 협력은 중동과 동아시아의 사업 관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상호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부는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정보공유, 인적교류, 상호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한-카타르 간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
- 이어서, 산업부는 10월 26일 두바이의 대표적인 자유구역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제벨알리 프리존(JAFZA)을 방문하여 세계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양국 경제특구 간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두바이 프리존 청장 간 면담 개요 >

- ① **두바이공항 프리존(DAFZA) 청장 겸 세계자유구역기구(WFZO) 의장 면담**
 - 일시 : '21.10.26(화) 9:30
 - 참석자 : (우리측)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두바이총영사 등 (UAE측) Mohammed Al Zarooni 청장 등
- ② **제벨알리 프리존(JAFZA) 청장 면담**
 - 일시 : '21.10.26(화) 14:00
 - 참석자 : (우리측)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두바이총영사 등 (UAE측) Abdulla Bin Damithan 청장 등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우선,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두바이 자유구역청은 양국의 경제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서로 소개하였음
- 이후, 양 측은 두바이가 산업전략 2030 등을 통해 비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한국형 뉴딜 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생명건강, 수소, 인공지능, 이동수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서로 의견을 모았음

< 두바이 프리존 현황 주요 내용 >

○ 제벨알리 프리존

- 걸프지역 최대항구인 제벨알리항을 거점으로 '85년 설립된 중동 최초 프리존으로, 7천여개 기업이 입주한 중동 경제·물류 중심지로 성장

○ 두바이 공항 프리존

- 국제여객 기준 세계 1위인 두바이 공항을 거점으로 '96년 설립된 프리존으로,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UAE 항공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

< 한국 경제자유구역 소개 주요 내용 >

- (개요) '03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 중

- (성과) 누적 FDI 200억불, 국내외 6천여개 기업 유치, 최근 5년간 매출·기업수 고용 측면에서 매년 10%씩 성장

○ (주요 사례)

-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성장한 인천경제자유구역
- 환적물량 세계 2위의 국제 항만으로 자리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작년 새로 지정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AI 융복합,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 중

- (정책방향) 작년 10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여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 * 연말까지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바이오, AI, 수소, 첨단소재, 미래 이동수단 등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

- 더불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세계자유구역기구* (WFZO)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하메드 청장과 WFZO를 통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네트워크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 * 전세계 경제특구 간 체계적·조직적 협력을 위해 두바이 정부 주도로 '14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139개국 750개 경제특구가 회원으로 가입

- 프리존 청장과의 면담 이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두바이 공항 내 물류단지 및 제벨알리 항만시설 등을 시찰하고 프리존 운영 현황과 성공요인 등을 파악함

- 안성일 단장은 앞으로 석유가스 자원 부국인 카타르, UAE의 경제특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입주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3분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인 288억달러 달성 ('21.10.26.)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 '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

【 총괄 :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인 288억달러(전년동기대비 13.2%↑) 】

□ '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288억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 역대 3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88('21.3Q), (2위) 269('17.3Q), (3위) 261('12.3Q)

○ 1분기와 2분기에도 분기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신기록을 이어가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임

* 역대 1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70('21.1Q), (2위) 252('18.1Q), (3위) 245('12.1Q)

* 역대 2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95('21.2Q), (2위) 272('18.2Q), (3위) 264('14.2Q)

< 수출액 추이 >

(분기 기준, 억달러)



< 수출액 증감률 추이 >

(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



□ ('21년 9월) 월수출액은 97억달러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2.8%↑)*, 1~9월까지의 누계 수출액은 85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 '20년 9월 수출실적증대(94억달러, 전년동기대비 19.0%↑)에 따른 기저효과 존재

** 월수출액(억달러, 전년대비증가율) : ('21.7) 101(18.7%↑) → (8) 91(19.8%↑) → (9) 97(2.8%↑)

○ (월별) '20년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9월 수출액은 역대 2위를 기록

○ (누계) 역대 최고치('18년)보다 8.6% 증가하며 사상 최고기록 달성

* 역대 1~3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853('21), (2위) 786('18), (3위) 771('17)

< 수출액 추이 >

(1~9월 누계 기준, 억달러)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품목별 : 20대 품목 중 반도체반도체제조용장비철강판합성수지가 큰폭으로 성장 】

① (반도체 : 8.7억달러) 반도체 수출단가의 가파른 상승세, 중화권 수주 급증 등으로 7, 8월 수출이 나란히 역대 1, 2위 기록(48.2% ↑)

* 월별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 ('21.7) 3.0 → (8) 3.0 → (9) 2.7

② (반도체제조용장비 : 10.9억달러) 반도체시장 호황으로 글로벌 기업(대만, 미국 등)의 공격적인 공장 투자 증설에 따라 장비 수요가 급증했고, 역대 최초로 분기 수출 10억달러 돌파(47.7% ↑)

* 월별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억달러) : ('21.7) 3.6 → (8) 3.8 → (9) 3.6

③ (철강판 : 8.5억달러) 원자재 가격상승과 주요국(멕시코, 태국 등)의 건설 경기 회복 영향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44.6% ↑)

* 월별 철강판 수출액(억달러) : ('21.7) 2.9 → (8) 2.7 → (9) 2.8

④ (합성수지 : 10.1억달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 비대면 관련(위생용품, 포장용기 등) 수요 지속으로 '14년 4분기 이후 최고(44.4% ↑)

* 월별 합성수지 수출액(억달러) : ('21.7) 3.4 → (8) 3.3 → (9) 3.4

< 3분기 상위 품목의 수출실적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구분 (전체품목 중 순위)	플라스틱 제품 (1위)	반도체 제조용장비 (3위)	합성수지 (4위)	반도체 (6위)	철강판 (7위)
3분기 수출액	14.6 (5.5%)	10.9 (47.7%)	10.1 (44.4%)	8.7 (48.2%)	8.5 (44.6%)
1~3분기 누계 수출액	42.6 (12.4%)	29.8 (29.9%)	29.8 (49.1%)	23.7 (46.4%)	22.2 (36.9%)

【 국가별 : 10대 국가 중 태국(29.5% ↑), 대만(26.9% ↑)이 강한 성장세 시현 】

□ 중국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증가 등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화장품 수요 감소로 3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됐고, 태국과 대만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3분기 상위 국가의 수출실적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구분 (전체국가 중 순위)	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 (3위)	대만 (6위)	태국 (10위)
3분기 수출액	62.7 (7.2%)	38.8 (16.1%)	27.3 (9.5%)	8.2 (26.9%)	6.5 (29.5%)
1~3분기 누계 수출액	183.5 (13.1%)	108.5 (15.4%)	83.3 (16.0%)	24.2 (27.9%)	18.8 (24.0%)

① (태국 : 6.5억달러) 공장 섯다운에 따른 제조경기 위축에도 진단키트(의약품·기타정밀화학제품)의 수출 강세로 높은 증가율 시현(29.5% ↑)

* 對태국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의약품) 0.5(386.0), (기타정밀화학제품) 0.3(626.1), (자동차부품) 0.2(54.6) 등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② (대만 : 8.2억달러) 반도체 산업호조로(반도체제조용장비, 파운드리,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정밀화학원료) 가파른 성장세 기록(26.9% ↑)

* 對대만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1.4(46.9), (반도체) 0.9(75.7), (정밀화학원료) 0.2(82.7) 등

【 수출방식 : 온라인 수출액(2.9억달러, 42% ↑)이 크게 증가 】

□ (총괄) 3분기 온라인 수출은 2.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3% 증가

○ '20년 1월부터 매월 두자릿수~세자릿수 증가율 지속

* 월별 온라인 수출증감률(%) : ('20.1) 45.5 → (6) 164.6 → (12) 101.6 → ('21.3) 172.6 → (9) 53.7

□ (세부 분석) 전체 수출에 비해 수출품목이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에 집중되고, 수출국가도 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

○ (품목별) 품목당 5% 수준 이하로 다변화되어 있는 전체 수출과 달리 화장품 의류 및 음향기기(CD 음반 등) 등 5대품목이 수출의 71%를 차지

- 최근 음향기기의 對중국·미국 수출이 증가하며 3분기 실적이 지난해 연간 2배

* '19년 1.6백만달러(11위) → '20년 9.7백만달러(8위) → '21.9월 49.7백만달러(3위)

< 중기 전체수출 품목 비중/증감률 >
(단위 : %)

구분	비중	증감률
1 플라스틱 제품	5.1	5.5
2 화장품	4.3	△4.2
3 반도체제조용장비	3.8	47.7
4 합성수지	3.5	44.4
5 자동차부품	3.4	△0.2
상위 5대 합계	20.1	13.4

< 중기 온라인 수출 품목 비중/증감률 >
(단위 : %)

구분	비중	증감률
1 화장품	38.6	36.3
2 의류	13.8	15.4
3 음향기기	9.8	553.2
4 컴퓨터	4.4	203.3
5 기타섬유제품	4.3	604.5
상위 5대 합계	70.9	61.7

○ (국가별) 온라인 수출 상위국가는 일본(1위), 미국(2위), 중국(3위), 싱가포르(4위) 등으로 전체 수출 상위국가와 다소 상이

-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상황

* (참고) 국내에 법인이 설립된 해외 온라인몰(국가) : 아마존(미국), 이베이(미국), 알리바바(중국), 쇼피(싱가포르), 큐텐(싱가포르), 큐텐재팬(일본), 라인(대만)

< 중기 전체수출 국가 비중/증감률 >
(단위 : %)

구분	비중	증감률
1 중국	21.7	7.2
2 미국	13.5	16.1
3 베트남	9.5	9.5
4 일본	8.8	12.8
5 홍콩	3.2	3.9
상위 5대 합계	56.7	10.3

< 중기 온라인 수출 국가 비중/증감률 >
(단위 : %)

구분	비중	증감률
1 일본	48.0	49.8
2 미국	19.2	120.1
3 중국	18.7	△8.2
4 싱가포르	2.8	4.9
5 대만	1.6	117.8
상위 5대 합계	90.3	39.9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홍남기 부총리, 제26차 당사국총회 Finance Day 행사 참석 및 덴마크 재무장관 양자면담 (‘21.11.0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 10.31~11.12, 영국 글래스고) Finance Day 행사에 참석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동 행사 참석 계기 페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과 개도국 대상 기후대응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을 위해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니콜라이 할비 와멘 덴마크 재무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음

【 COP26 Finance Day 참석 】

- COP26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 자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등 기후변화 관련 재무트랙 논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국 재무장관**과 관련 인사를 초청, Finance Day를 개최

* COP26은 당초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되어 '21년에 개최

** 한국,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 주요국

- 홍 부총리는 Finance Day 행사 중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와 지속가능한 보고기준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트랙의 주요 논의에 참여

*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19년 4월 설립, 총 65개 국가 가입(한국 '21.4월 가입)

- 홍 부총리는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에 참석하여 재무트랙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아래 3가지 협력/조화의 중요성을 강조

① (정책 간 조화) 재정, 시장 메커니즘, 규제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 온실가스감축 인지에산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

② (공공민간 간 협력) 민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 관련 재무정보 공시 단계적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

③ (국가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자원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신규 공여검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업에 30억원 지원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홍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보고 기준 세션에 참석,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함께 국제 지속가능 기준위원회* 출범을 환영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지속가능한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해 COP26 계기 설립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위원회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MOU 체결 】

- 홍 부총리는 동 행사 계기 페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과 '22~'24년간 매년 10억원(총 30억원)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후대응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에 지원하는 MOU를 체결

* 사업 주요 내용 : 개도국(개별 국가/권역별)의 지역특성에 따른 기후재원 수요를 확인, 재원조달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및 기후재원으로 연계 가능한 후보사업 발굴 등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감사를 표명하고,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임을 언급

【 덴마크 재무장관 양자면담 】

- 홍 부총리와 니콜라이 할비 와멘 덴마크 재무장관은 P4G* 정상회의 개최국(제1차: '18년 덴마크, 제2차: '21년 한국)으로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등을 통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덴마크 재무장관은 거시경제정책, 재정계획, 예산, 공공투자관리, 공공조달 등에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하는 논의(헬싱키 원칙 4) 선도국*으로 동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관심을 요청

* 연합은 헬싱키 원칙에 기초해 논의를 진행하며, 각 원칙별로 1~2개 주도국을 선정, 덴마크는 미국과 함께 원칙 4의 주도국 수입 중

- 홍 부총리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 인지에산제도 시범도입 등 우리나라의 관련 재정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등을 통해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

<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의 헬싱키 원칙 >

- 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 ② 기후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 관련 정책 장려를 위한 정책 경험 공유
- ③ 효과적 탄소가격제 달성을 위해 노력
- ④ 거시경제정책, 재정계획, 예산, 공공투자관리, 공공조달 등에 기후변화 위험 반영
- ⑤ 금융부문의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달
- ⑥ 국가결정기여(NDC)의 준비 및 이행에 적극적 참여



산업부, 한-걸프협력이사회(GCC)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21.11.09.)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멕시코 FTA 추진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11월 9일 개최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 이번 간담회는 FTA 추진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①한-GCC FTA 간담회와 ②한-멕시코 FTA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함

【 한-GCC FTA 】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한-GCC FTA 협상재개 추진에 대해 최근 양측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 GCC 회원국들의 잠재력*과 우리나라와의 에너지·제조·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간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

* (1인당 평균 GDP) 2.4만불, (14세이하 인구비중) 26.1% (Economist 추정, '20)

□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별 연구기관은 양측간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므로 제조업의 상호간 관세 철폐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 GCC와의 농업 협력 프로그램, 수산 부문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양국간 교역·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업계(석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비철, 전자, 전기, 기계 등)는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GCC와의 교역 확대 및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고

○ 우리 수출입 기업의 활용이 용이한 원산지 기준 수립 등을 요청

【 한-멕시코 FTA 】

□ 한편 한-멕시코 FTA와 관련,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정부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특히 멕시코와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위 교역상대국이고, 양국간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로 인해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주요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멕시코 FTA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 이후에도, 한-GCC FTA 및 한-멕시코 FTA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1.11.18.)

- 이덕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8일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
 -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른 신고 결과 및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을 토대로 요소수의 생산·유통·배분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에 대해서는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음
- 아울러, 요소수 이외에도 경제안보와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
- 첫째, L社를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
 - 환경부는 주요 5대 생산업체의 원활한 생산 지원을 위해 7개 공장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매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동중
 - 한편, 11월 17일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의 2/3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
 - 한편, S社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社가 생산하여 중점 유통 주유소에 공급 중인 180만 리터는 11월 17일 84개 주유소에 31.6만 리터가 공급되어 누적(11.12~11.17) 112.7만 리터가 배송 완료되었음
 - 100여개 중점 외 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신고 시스템상 신고한 주유소의 전체 공급량에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수치는 16일 약 30만 리터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 100대 외 공급량(만 리터) : (11.13) 5 (11.14) 5 (11.15) 29 (11.16) 30
- 둘째, 요소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시행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재고현황 공개도 1일 2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주유소의 화물차 대기줄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정화되는 추세
 - 아울러, SKT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유소 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소비자의 사용상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
 - * (1단계) 중점주유소 위치 및 재고량 1일 2회 제공 → (2단계) 중점주유소 위치, 실시간 재고량 및 가격 → (3단계) 정보제공 주유소 개수 확대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셋째,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내 수출 전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 대한 물량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중 11월 17일 기준 11,310톤이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 아울러, L사는 러시아와 차량용 요소 320톤을, J사는 UAE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150만 리터를 추가로 계약
 - 한편, K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 198톤은 전일(11.17) 19시 인천항을 통해 도착하였으며, 해당 요소는 품질검사를 거쳐 차량용으로 활용될 예정
 - 동 물량은 중국 요소 수출검사 강화 조치 이후 초기단계부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발굴·수입하여 국내 도입된 첫 케이스로, 정부는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전담관을 배정하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신속통관, 품질 검사 기간 단축, 외교채널 활용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범정부 대책에 반영하여 지원한 바 있음
 - 이러한 해외 확보물량도 신속히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이번달 중으로 차량용 500톤 등 요소 8,800톤, 차량용 요소수 28만 리터가 추가로 반입될 예정
-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는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투 트랙으로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왔음.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중심으로 준비해 온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우선,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 중부터 가동
 -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 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하여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 ② 다음으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부품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11월중 신설하여 전체 3~4,000개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검토하여 조속히 진행
 - ③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 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 ④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11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적극 협업



03

국내외
정책이슈

**중견기업연합회·14개 광역시도·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
 - 이번 투자설명회는 2021 국가균형발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 투자 및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정책과 지자체 투자환경 등 국가 전반의 지방투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자리
- 지방투자에 관심이 있는 중견기업 50여개사, 14개 광역 지자체, 중견기업연합회, 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였으며, 상생협력 협약식과 투자유치 MOU 협약식을 시작으로, 투자지원제도 설명, 14개 지자체의 합동 설명회에 이어 기업-지자체간 1:1 상담회 순으로 진행
 - **(상생협력 협약식)** 중견기업연합회, 전국 14개 광역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방투자 발굴, 기관간 협력 등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
 - **(투자유치 MOU)** 전라북도-대주코레스, 전라북도-아데카코리아, 경상북도-웰츄럴 바이오간 투자 착수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함. 기업과 지자체는 이 MOU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 착수와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게 됨
 - * 전북 완주에 대주코레스 843억, 아데카코리아 500억 신규투자
 - * 경북 안동에 웰츄럴바이오 150억 신규투자
 - **(투자지원제도 설명)** 산업부가 기업지방투자 관련 대표적 지원정책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국내복귀지원 보조금에 대해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비율 등 제도 전반을 설명
 - **(지자체 합동설명회)** 산업단지공단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차별화된 지원제도, 교통·물류·인력 현황 등 투자 여건을 소개
 - **(기업-지자체 1:1 상담회)** 중견기업과 관심지자체간 맞춤형 1:1 투자유치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
-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선정, 투자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투자 의사가 있는 여러 중견기업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과 지자체간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됨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풍부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지방에 투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 역량있고 건실한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



세계적 R&D로 글로벌가치사슬 진입 전방위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하여 주한독일대사관 피터 Bingler 부대사, 세계적 수요기업(BMW코리아 디터 스트로블 CT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협력 R&D 업무협약식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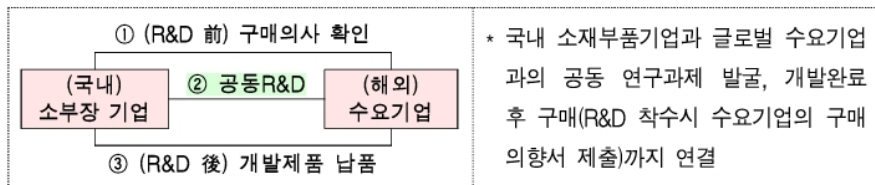
< 글로벌 기술협력 R&D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1.11.2(화) 14:00~15:30,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참석자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BMW코리아 CTO,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등
 - * 바텍, 더블미, 코미코, 글로벌에코, 이너트론, 경원산업, 펠릭스테크 등 그 외 R&D수행기관은 온라인으로 참석
- 행사내용 : ①글로벌 수요기업-국내 소부장기업 간 R&D 업무협약식
 ②미래모빌리티 기술협력을 위한 BMW-KIAT 간 MOU체결식
 - * 내용 : 기술동향 공유(BMW)를 기반으로 우수 국내 파트너 발굴 지원(KIAT)
- 세부 행사일정 :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14:13	인사말씀	참석자
14:13~14:18	글로벌 R&D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
14:18~14:30	글로벌 수요기업-국내 소부장기업 간 협약 BMW코리아 - KIAT MOU 체결식	참석자
14:30~15:30	과제별 추진내용 및 수요기업 소개	주관 및 해외기업

- 국내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수요연계형 R&D는 세계적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제적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사업 개요 >



- 지난해 시범 추진에 이어, 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의 세계적 수요기업 수요를 대상으로 한, 올해 본 사업 공모에 미래차용 소재부품, 반도체 장비,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됨
- 그 중 일진하이솔루스(주)는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BMW그룹(독)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 개발 성공시 BMW 수소차 차세대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주)펠릭스테크는 세계적 자동차부품 기업인 Tenneco사(미)와 국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경량 부품·소재를 개발하며, 친환경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의 대표주자인 우리산업(주)도 세계적 수요기업 A사와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차세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
 - 이외에도 러시아 MTS사(제조서비스), 독일 의료기기 B사(의료장비), 대만 파운더리 C사(반도체) 등 우수 세계적 기업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기술개발에 참여하였음
 - 이번에 선정된 11개 연구과제는 향후 3년간 약 3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기술개발 성공 시 세계적 수요기업으로의 수출 효과만도 수 천억원이 예상됨
 -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세계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치메이킹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개념 실증-테스트(PoC*)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
- * PoC(Proof of Concept) : 세계적 기업들이 외부기술-제품을 본격도입하기 전 효과성 판단을 위해 진행하는 실증-테스트(PoC 성공시 후속기술개발 및 수출성사 가능성 ↑)



- 한편, 행사에서는 국내 우수 파트너 발굴 및 기술협력 연계 지원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기업 BMW와 기술개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MOU도 체결
- 양 기관은 자율주행라이다 인지시스템('20년 서울로보틱스), 압축 수소 저장시스템('21년 일진하이솔루스) 등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공동 개발 과제를 착수하고,
- 기술포럼 및 국내 우수 파트너 기업 발굴 행사 개최, 협력 희망분야 교환,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가기로 함
-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2년간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 GVC 재편 속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국내 소부장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힘



2021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기획재정부)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월 3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 2021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2021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금번 위원회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
 - (철도) '25년부터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등을 위한 별내선 연장사업** 선정
 - * 왕숙(5만 4천호, 약 12만 5천명)·왕숙2(1만 4천호, 약 3만 3천명)
 - ** 별내역 ~ 별가람역, 복선전철, 연장 3.2km
 - (도로) 교통혼잡정체 해소를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21~'25, 국토부)에 반영되어 올해 3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된 ①황령3터널(부산), ②유성대로~화산교(대전), ③제2명촌교(울산)의 3개 도로 사업 선정
 - * ①부산시 연산동~남구 대연동(4차로 신설, 4.1km), ②대전 유성구 용계동~덕명동(4~6차로 신설, 3.7km), ③울산 중구 반구동~남구 삼산동(0.9km)
 - (공항) 도서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2개 공항 사업(백령 소형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선정
 - * (백령 소형공항 건설) 현행 선박이용시 4~5시간 소요, 선박 결항시 상주인구 1만명의 대체 교통수단 부재(선박 결항률 17.9%)
 -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현행 공군비행장에 민항시설 설치하여 서산당진 등 9개 시군주민(148만명)의 공항 이용시간 대폭 단축(現 2시간 → 30분)
 - (항만)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수심확보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선정
 - * 현 투기중인 금란도 투기장(잔여 매립용량 약 170만㎡)은 '22년 완료, 새만금간척지 투기장(잔여 매립용량 약 480㎡)은 '24년 이내에 투기완료 예상
 - ** 규모 :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수토용량 3,180만㎡
 - (상수도)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선정
 -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 낙동강 수계 다수 광역기초 지자체간 합의 도출 등 감안, 예타 신속 추진과 조사 과정에서 사업 특수성 등 최대한 반영 필요(위원회 권고)
 - * 구미 해평 취수장개발(30만㎡/일), 운문댐 물 울산 공급(반구대암각화 보호), 합천 황강 복류수 개발(45만㎡/일), 창녕 강변 여과 개발(45만㎡/일)
 - (건축) ①차세대 과학기술(바이오, 탄소중립, 빅데이터, AI 등) 체험, 관람객의 쌍방향 과학실험 참여 등이 가능한 복합과학문화공간 조성



03

국내외
정책이슈

- ❶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데이터수집, 실증연구, 기술보급 등을 수행하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 ❷노후산단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을 IoT 기반 실시간 감시·관제·조치하는 화학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선정(3건)
- (정보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보조금 직접 신청 등 직접 비대면 민원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
 - * (현행) 민원인이 지자체 방문 및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개선) 민원인이 농림분야 민원서비스(직불금, 농기자재 지원 등)를 온라인·키오스크 등으로 신청, 빅데이터·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

【 2021년 9~10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9~10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친 사업 중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정비의 2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의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하였음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❶특수영상제작센터 구축, ❷첨단 특수영상 기술개발·지원, ❸특수영상 개발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도약시키는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 ❶영화·드라마 등 특수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후반작업이 윈스탑으로 진행
 - ❷학계·연구원(KAIST, ETRI 등)과 협업(MOU 체결) ❸초급·심화교육과정 운영(연 200명)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화력발전소가 지화화(‘18)됨에 따라 폐기된 발전설비를 산업유산·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
 -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제방축제보축, 준설 등을 추진하여 항구적인 치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 (예타 사업계획안)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2~’27 / 1,534억원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운영 평가 결과 등 】

-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R&D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에게 위탁·운영중(‘18.4~)인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평가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의결하였음



< 평가 결과 >

- (우수한 점) ①사업 유형별(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특성에 맞는 가중치 적용 등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 ②중전 예타 대상사업 선정시 사전절차로 실시한 기술성 평가를 폐지하여 예타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사업 선정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부처 부담 완화
 - *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전 단계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파급력 등을 평가
 - ** 소요기간(대상선정/예타조사) : (위탁前) 13주 / 13.5개월 → (後) 5주 / 6.2개월
 - ③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타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우수 평가
- (미흡한 점) ①국가재정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미흡, ②대규모 재정사업 검토를 위한 사전 예비검토제도 형식적 운영, ③세부지침 미비 등으로 조사의 일관성·전문성 부족, ④조사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됨

-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다음 제도개선 사항을 과기부에 권고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
 - ①R&D 사업의 과학기술성과 함께 경제·재정 영향 등에 대한 균형있는 검토를 위한 재정전문가 추가 등 총괄위원회 구성 개선, ②대규모·장기 사업 등에 대한 내실있는 예비 검토를 위한 별도 분과위원회 구성
 - ③부문별(사업유형별·분야별) 세부지침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사의 전문성·일관성 제고, ④전체 R&D사업(순수R&D 포함)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체계 마련(과기부 주관)

• (참고) 2021년 제3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단위 : 억원, 신청 기준)

부처	유형	사업명	총사업비 (국고)
과기부	건축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1,360(1,224)
국토부	철도	별내선 연장사업	4,614(2,600)
	도로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3,250(1,087)
	도로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1,594(363)
	공항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1,740(1,740)
	도로	제2명춘교 도로개설사업	1,340(670)
	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509(509)
해수부	항만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4,287(4,287)
농림부	정보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86(1,181)
	건축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1,092(1,092)
환경부	건축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설 구축	854(854)
	수자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21,572(8,257)



용흥택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흥택 제1차관은 11월 5일 개최된 경북 구미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대한 전망을 공유

< 경북 구미 강소특구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1.11.5(금) 11:00~12:00, 구미 구미코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금오공과대학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참석 : 과기정통부 1차관,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금오공대 총장, 국회의원, 특구재단 이사장 및 유관기관·기업관계자 등 약 50여명

-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 '19년 6월에 총 6곳(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이 지정되었고, '20년 7월에 총 6곳(구미, 서울,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이 신규 지정됨
- 그 중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MULTI* 제조 혁신 협력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전망이 발표됨
- * Manufacturing Upscale & Leading To Innovation
-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 최초로 설립된 연구소기업 3개사의 현판 수여식도 이루어졌음

< 현판 수여식 관련 연구소기업 3개사 세부 내용 >

구분	회사명	사업내용
1호	버던트	식물 종류에 따라 식물에 제공되는 광원과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식물 재배 장치
2호	아이팜	과수 인식 분무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동력분무기가 자동으로 과수에게 농약을 분무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용 다목적 방제기
3호	편테이블	과열증기로 열처리 후 급속 동결하여 품질이 개선된 냉동육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성분의 변화가 적고 조직감이 향상된 기능성 밀키트, 즉석식품(HMR)

- 용흥택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하면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현재 구미가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며,
-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강소특구 육성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1.11.5(금) 14:00~16:00,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위원현황 :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촉위원 10명
- 안건 : ①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②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옹동2지구(2단계)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③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울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④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❶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하였음
 - 그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하여 각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실시('20.9~'21.3)하였고,
 - * 경자청간 중복된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 내 육성 부문(바이오의 경우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등을 검토
 - 각 경자청은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하였음(~9.30)
 - * 대학, 테크노파크,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진흥원 등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
 -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명)을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
 - * 경자구역별 3~4개 산업, 총 504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신청에 대해 중복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울산 바이오, 경기 유통, 동해안 이모빌리티) 및 72개 코드 제외
- 이번엔 경자위에서 확정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각각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이하 코드) 26~56개로 구성됨



-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 여러 경자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자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계획
- * (예)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인천	①바이오·헬스케어 ②스마트제조 ③항공 복합물류 ④지식·관광서비스
부산진해	①복합물류·운송 ②스마트수송기기 ③첨단소재·부품·장비 ④바이오·헬스케어
광양만	①기능성화학 ②그린에너지 ③금속소재·부품 ④물류·운송
경기	①미래모빌리티 ②의료·바이오 ③수소에너지 ④물류·컨벤션
대구경북	①ICT·로봇 ②의료·바이오 ③미래모빌리티
동해안	①휴양형관광·레저 ②수소에너지 ③첨단소재·부품
충북	①바이오헬스 ②스마트IT부품 ③항공모빌리티 ④에너지소재·부품
광주	①미래형자동차 ②스마트에너지 ③시용복합
울산	①미래모빌리티 ②미래화학신소재 ③수소·저탄소에너지

- 이번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됨
- 각 경자청은 연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된 자원, 기술, 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규제발굴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
-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② 부산진해 경자구역 옹동지구(II단계) 물류기반 개선을 통한 활성화

- 옹동지구(II단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 물류 차량 이용편의 제공(주차장 부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
-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산항 신항의 복합물류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기간) II단계)2003~2021 → II-1)2003~2025, II-2)2003~2027, II-3)2003~2025

• 옹동지구 II 단계를 세부 3단계로 구분하고 사업기간을 연정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사업비) (기정) 3,387억원 → (변경) 3,450억원(증 63억원)

• II-1단계 686억원(국비), II-2단계 2,177억원(민자, 증 63억원), II-3단계 587억원(민자)



❶ 광양만권 경자구역 울춘제2산단을 투자수요 대응형 산단으로 적극 개발

- 광양만권 울춘제2산단은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되는 국책 사업 연계형 계획산단으로,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사업기간	2010 ~ 2021	2010 ~ 2024

-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울춘제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부지로 활용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유인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

❷ 충북 경자구역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의 재배치

- 산업용지를 집적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산업용지 내 주차장, 공원과 인접 산업용지 위치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면적(㎡)	411,152	411,520	
토지이용 계획 (㎡)	산업시설 용지	303,601	294,974
	이주자 택지	4,777	4,805
	공공시설 용지	102,774	111,741

-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 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 산업 선정은 경자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연내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자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참고) 대구경북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및 추진 방향

핵심전략산업	추진 방향
ICT·로봇	수성, 테크노폴리스, 신서지구 ICT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ICT·로봇 융복합 고도화
의료·바이오	대구 신서지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의료 산업 클러스터, 경북 안동 국가백신산업 클러스터, 포항 차세대 바이오 산업밸리 조성·연계로 의료·바이오 생태계 구축
미래모빌리티	대구 경북 8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심 산업 기반과 다수의 모빌리티 연구기관의 집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차별화된 미래 자동차 생태계 조성



01. 인공지능 전지역·전산업 확산 추진방향 수립 (관계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발표
-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인공지능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고,
 - * 인공지능 준비지수(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 '20) : ('19) 26위 → ('20) 7위 등
 -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20~'24, 3,939억원)과 지역균형 뉴딜('20.10~) 등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렇지만 지역은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특히 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뉴딜사업을 연계·대형화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 * 인공지능 기업수(84%), 매출(84%), R&D(59%) 등 수도권에 인공지능 역량이 편중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정책추진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국민 삶의 현장인 전지역·전산업 속으로 본격 확산하기 위해 이번 추진방향을 마련
 - 앞으로 지자체들은 권역별 협업을 통해 본 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진과제 발굴과 예산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 확산을 본격 실행해 나갈 계획

I. 비전 및 추진전략

-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를 비전으로,
 - △ (혁신거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 △ (선도사업) 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대형 프로젝트 기획, △ (특화융합)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대 등 3대 전략 하에 추진될 계획
 - 선도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을 향상시키고, 초광역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할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이며,
 - 특화융합은 지역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 생산관리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단위과제
-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및 수도권 등 각 권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사업·과제를 연계하고, 권역 간에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

II. 지역 확산 추진방향

- 각 권역별 인공지능 확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 지역확산 권역별 추진방향(안) >

<비전>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 디지털 기반(인프라) 조성을 넘어, 세계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	
호남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농식품/건강관리/콘텐츠)
⇄ ⇄ ⇄ ⇄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	
충청권	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 인공지능+(자율주행/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물)
영남권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 인공지능+(기계/조선/철강/의료기기/안전)
강원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인공지능+(관광/의료/수소)
제주권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관광/농업)
수도권	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 인공지능+(금융/물류·교통/생명건강/매체)

- ① **(호남권)**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위치한 호남권은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마련
- * 데이터센터(88.5PF) 및 실증장비 구축, 3대 주력산업(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융합,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20~'24, 3,939억원)
 - 선도사업은 △ 권역별 수요를 반영한 기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데이터담 등의 대규모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혁신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원스톱 개발거점 도약 등을 기획하여 추진
 - 특화융합 과제는 호남권의 주요산업인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제조·가공 등과의 AI 융합 모델을 기획·개발
- ② **(충청권)** 출연(연), 연구소기업 등 연구 기반이 풍부한 강점을 반영하여, 대형 인공지능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선도사업 추진방향으로 마련
- 선도사업은 △ 출연(연) 중심의 바이오 등 분야별 인공지능 융합 연구, △ 연구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및 연구자간 협업 활성화 등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등을 기획하여 추진
 - 특화융합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개발실증, 바이오 분야 신약 후보 물질 분석 등에 인공지능 융합 과제를 발굴·추진
- ③ **(영남권)** 산업 데이터 확보 등이 유리한 제조 산업 집약지의 특징을 활용하여,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사업 추진방향으로 마련
- 선도사업은 △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연계하는 초광역 물류기반을 중심으로 물류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지능형로봇 적용, △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공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기획하여 추진
 - 특화융합은 기계, 조선 등 제조산업의 생산관리 최적화, 교통, 재난 등 도시안전 분야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FOCUS

- ④ **(강원권)** 민간 데이터센터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 등 데이터 강점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서비스 확산을 선도사업 추진방향으로 마련
 - 선도사업은 △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과 활용 환경 조성, △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혁신적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을 기획하여 추진
 - 특화융합은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서비스, 액화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관리에 인공지능 융합을 추진할 예정
- ⑤ **(제주권)** 신기술 실증환경에 적합한 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을 선도사업 추진방향으로 마련
 - 선도사업은 전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신기술의 실증환경 조성과 지역현안 해결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 등을 기획하여 추진
 - 특화융합은 맞춤형 관광 서비스, 월동작물 생육관리 등에 인공지능 융합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
- ⑤ **(수도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하므로, 민간 주도로 인공지능 글로벌화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고, 경기와 인천은 바이오, 미디어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특화융합 과제를 기획·추진







III. 향후 이행방안

- 앞으로 각 지자체들은 본 추진방향에 따라 권역간 협업을 통해 현장수요 중심 과제를 기획하고 시행할 예정이고, 과기정통부는 과제기획에 대한 전문 컨설팅, 예산확보, 과제간 협업 등을 지원할 계획
- 먼저, 지자체 주도로 호남, 충청, 영남, 강원, 제주 등 각 권역별로 구체적인 대규모 선도사업을 1개씩 기획하여,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
 - 세부적인 단위과제인 특화융합은 인공지능 융합활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22년 AI+X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가공·학습부터 인공지능 개발·활용까지 지원을 확대
- 인공지능·SW 교육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로 보유한 데이터와 민간·공공·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대규모로 구축·개방할 계획
- 인공지능 선도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권역 내에 인공지능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SW 진흥시설, ICT 규제샌드박스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세제규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권역별 사업·과제 발굴의 타당성, 지역간 협력 등을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참고.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 추진 전략**
- ① **[혁신거점] 광주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
 - ② **[선도사업] 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대형 프로젝트 기획**
 - ③ **[특화융합]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대**

추진 방향	지역거점 및 확산기반 조성('20~'24) - 인공지능 인프라 중심 - - 지자체 단위 추진 - * '24년 이후 전국 확산 준비(세부기획, 예타)	순지역 본격확산('24~'29) - 인공지능 활용성과창출 중심 - - 권역 간 협업 기반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넘어, 글로벌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① 인프라(데이터센터) 구축 ②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③ 3대 주력산업 AI융합 R&D 	<div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5px;"> 호남권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인공지능 + 에너지 + 농식품 + 헬스케어 + 자동차 + 콘넙츠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담·AI 집적연계, 정책연구 역량 강화 </div> <p style="text-align: center;">⇕ ⇕ ⇕ ⇕</p>
권역별 확산 가속화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인공지능 확산 추진 ① 지자체 주도형 사업 * 예)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세종), AI 일자리 매칭 등 취업지원체계(강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충북) ② 지역 공공기관 선도사업 * 예)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전 등) ③ 디지털뉴딜 지역 사업 * 예) AI+X 지역특화산업 지원(충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충청권 : 선도적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 자율주행 + 반도체 + 바이오 + 디스플레이 + 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영남권 : 초광역 물류·제조 혁신  인공지능 + 기계 + 조선 + 할강 + 의료기기 + 안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pink; padding: 5px;"> 강원권 :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인공지능 + 관광 + 의료 + 수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제주권 : 신서비스 실증·시범도입  인공지능 + 관광 + 농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y; padding: 5px;"> 수도권 : 민간주도 글로벌화 전초기지  인공지능 + 금융 + 문화/교통 + 바이오헬스 + 미디어 </div>